

신지애 “파리행 티켓 포기 못해”

내일 개막 KPGA 투어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 출격

이예원, 2연승+2연패 도전...윤이나 21개월만의 복귀 주목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이예원이 2연승과 대회 2연패라는 두 마리 토끼사냥에 나선다. 이예원은 4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은 KLPGA 투어가 올해 국내에서 처음 치르는 대회다. 이예원은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다.

이예원이 처음 치르는 타이틀 방어전이다. 이예원은 지난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거두고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은 올해부터 열리지 않는다.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이 이예원의 첫 타이틀 방어전이 된 까닭이다.

지난달 17일 태국에서 열린 블루카이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예원은 이번에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 2개 대회 연속 우승도 이룬다.

통산 4승 가운데 첫 우승과 두 번째 우승을 제주도에서 거둔 만큼 이예원의 대회 2연패와 2연승 야심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이예원의 대회 2연패와 2연승 못지않게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는 장타자 윤이나의 필드 복귀다.

2022년 KLPGA 투어에 발을 디딘 윤이나는 남다른 장타력과 화려한 공격 플레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팬을 KLPGA 투어 경기장으로 불러 모았다. 하지만 윤이나는 2022년 한국여자오픈 때 남의 볼을 치는 반칙을 저지르고 한 달 뒤에 실토히면서 3년 출장 금지 징계를 받고 퇴출당했다.

봉사 활동과 기부 등으로 반성의 기간을 보낸 윤이나는 출장 금지 기간이 1년 6개월로 경감돼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부터 KLPGA 투어 무대에서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윤이나는 2022년 7월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이후 1년 9개월 만에 KLPGA 투어 대회 출전한다.

윤이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타 여왕을 쫓던 2년 차 방신실과 장타 대결은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의 최대 흥행카드

가됐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고 동분서주하는 여자골프의 전설급 현역 신지애의 도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신지애는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를 마다하고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을 4월 첫 출전 대회로 삼았다.

KLPGA 투어가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와 비교해 세계랭킹 포인트를 쌓는데 불리하지 않다.

신지애는 “여러 투어에 출전하고 있지만, 환경이 변하더라도 나만의 루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체력에서 어려움은 없다”면서 “오랜만에 국내 팬들을 만나서 기대가 크다.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출사표를 전했다. /연합뉴스



이미향이 지난 1일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마지막날 1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포드챔피언십 3위 이미향 세계랭킹 14위...67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한 이미향의 세계랭킹이 쉼표 뒤졌다.

이미향은 2일 발표된 여자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67위에 올랐다.

지난주 81위에서 무려 14계단 뛰었다. 이미향은 2022년 허리 디스크 부상으로 한때 세계랭킹이 300위 밖으로 밀렸고 올해도 133위로 시작했지만 6개 대회에서 두 번 톱10에 입상하면서 세계랭킹을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고진영(6위), 김효주(9위)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안정권을 다졌지만 양희영(15위), 신지애(18위)는 분발이 요긴한 위치다. /연합뉴스

전국 모든 야구장에 KIA 응원가 울려 퍼진다



KIA 타이거즈 응원단 (KIA 타이거즈 제공)

올해도 원정 경기 팬과 함께하는 응원단 파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도 수도권 경기에서 이어 모든 원정경기에서 응원단을 파견한다.

이로써 KIA는 2022년부터 3년째 원정 전 경기에서 응원단을 파견하며 올해에도 전국 모든 구장에서 타이거즈의 응원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됐다.

KIA는 서한국 응원단장과 차이리더 4명을 매 경기 파견한다. 신나는 안무와 울동으로 팬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서한국 KIA 타이거즈 응원단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에도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응원을 보내주시는데 응원단도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면서 “합찬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멋진 응원을 펼쳐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난 1일 광주도시공사 회의실에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 광고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광주은행과 광고후원 협약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근)는 지난 1일 광주은행과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에 대한 광고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은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약 3천만원 규모로 광고후원을 하게 된다.

광고는 핸드볼팀 홈·원정 유니폼에 광주은행 광고물 부착과 함께 SNS, 인쇄물 광고 등 다방면적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은 여자핸드볼 통합리그에서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여자핸드볼 리그에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며 광주시의 대표 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은 3일 SK슈가글라이더즈전을 시작으로 15일 인천시청전까지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홈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제42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총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남과학대 볼링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과학대 볼링 '종합우승'

협회장배 총별선수권, 금2·은1·동2 남대부 1위

전남과학대 볼링팀이 제42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총별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과학대는 최근 강원도 원주 볼링파크볼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2개로 남자대학부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오은빈·이준서 조가 남대부 2인조에서 6경기 합계 2천355점(평균 219.6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김이현·진현규 조가 2천599점(평균 216.6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대부 5인조 경기에서 출전한 지민우·김관욱·김예준·변준현·양동준·이진홍은 6경기 합계 6천351점(평균211.7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김이현은 남대부 개인종합(개인·2인·3인·5인) 합계 5천446점(평균226.9점)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이밖에 김이현·이준서·오은빈·김지원·진현규·김동희가 5인조 경기에서 합계 6천217점(평균208.2점)으로 동메달을 보냈다.

한편, 세한대 강태영·이승빈·구성규 조가 2천599점(평균 216.6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대부 5인조 경기에서 출전한 지민우·김관욱·김예준·변준현·양동준·이진

축구 국가대표 감독 후보 11명 압축

국내 4명·외국인 7명...“5월 초중순까진 선임”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 차기 사령탑 후보가 11명으로 좁혀졌다.

정해성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축구력강화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11명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선상에 올리기로 했다”며 “국내 지도자가 4명, 외국인 지도자가 7명”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팀은 현재 사령탑 공백 상태다.

2월20일 정해성 위원장 체제로 전력강화위가 새로 구성돼 새 사령탑 선임 작업에 들어갔고, 그 사이 3월 A매치 기간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은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임시 사령탑’으로 투입돼 치렀다.

다음 A매치 기간은 6월로,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 원정 경기(6일)와 중국과의 홈 경기(11일)가 예정돼 있다.

애초 전력강화위는 5월까지 새로운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 계획대로라면 6월 A매치는 선임 감독의 데뷔 무대가 된다.

정 위원장은 “우선 외국인 지도자 7명에 대한 면담을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도자들의 경기 영상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지도자에 대한 면담이 끝난 뒤 국내 지도자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추려 나가며 5월 초중순까진 감독을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4라운드 '역대 최다' 평균 1만4천명

K리그1 역대급 흥행 돌풍

가장 많았다.

라운드 별로는 1라운드 평균 1만 5천743명, 2라운드 1만5천479명, 3라운드 1만4천577명, 4라운드 1만1천167명이 입장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3-4라운드 정도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예년보다는 꾸준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프로축구연맹은 분석했다.

올해는 K리그1 12개 팀 중 절반에 달하는 6개 팀이 유료 관중 집계 시대 홈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쓸 정도로 초반부터 열기가 높다.

프로축구연맹은 관중 수 증가가 서울, 전북 등 기존 인기 구단에 국한하지 않은 점도 올 시즌 초반 흥행의 특징이라고 짚었다.

광주FC가 홈 개막전 예매 시작 2분 30초 만에 매진을 이뤘고, 강원FC도 지난 주말 서울과의 4라운드에서 유료 관중 집계 시대 최초로 홈 경기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9년 DGB대구은행FC가 가장 이후 ‘신흥 인기 구단’이 된 대구FC는 이번 시즌 홈 3경기 모두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맹은 “지난 시즌 인기가 ‘반짝’이 아닌 올 시즌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구단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 등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